



**금호건설, 어버이날 맞아 사랑의 봉사 활동**  
 금호건설이 어버이날을 맞아 이연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을 찾아 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사 임직원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고 점심 시간 후에는 선물을 증정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 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임직원들이 효의 정신을 생활화해보자는 의미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고 점심 시간 후에는 선물을 증정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 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임직원들이 효의 정신을 생활화해보자는 의미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극동건설 안인식 사장, 캄보디아 산업훈장 수상**  
 극동건설 안인식 사장이 캄보디아 트라팜~캄푹 간 3번 국도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산업훈장을 받았다. 트라팜~캄푹 간 3번 국도는 우리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으로 추진된 국책 사업으로, 극동건설이 2004년 5월 착공해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업으로, 극동건설이 2004년 5월 착공해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대우건설, 제7회 가족 사랑 걷기 대회 개최**  
 대우건설이 어린이날을 맞아 남산 일원에서 제7회 대우건설 가족 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자녀들과 함께 여유롭고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 행사에는 해외 현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가족을 포함해 총 4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가족들은 각종 이벤트와 먹을거리를 즐기고 한가로운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현재 대우건설에서 전사적으로 진행 중인 '2008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했다. 어린이들이 모은 242만 6840원의 성금에 대우건설 측이 이와 동등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해 잘 걸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 포함해 총 4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가족들은 각종 이벤트와 먹을거리를 즐기고 한가로운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현재 대우건설에서 전사적으로 진행 중인 '2008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했다. 어린이들이 모은 242만 6840원의 성금에 대우건설 측이 이와 동등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해 잘 걸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사랑의 집짓기'**  
 삼성물산이 올해로 9년째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인 '해비타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지난 6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화합의마을'에서 '2008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2000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해온 삼성물산은 올해도 주택 2개동과 마을회관 1개동을 신축,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낡은 주택 8가구를 골라 설비와 마감재를 교체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2000년부터 광양과 경산, 강릉, 천안 등지에서 모두 223기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신축·제공해왔다. 2003년부터는 해비타트 활동을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로까지 확대했다.

2000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해온 삼성물산은 올해도 주택 2개동과 마을회관 1개동을 신축,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낡은 주택 8가구를 골라 설비와 마감재를 교체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2000년부터 광양과 경산, 강릉, 천안 등지에서 모두 223기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신축·제공해왔다. 2003년부터는 해비타트 활동을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로까지 확대했다.



**화성산업,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  
 화성산업 '화성자원봉사단' 30여 명이 대구 황금2동동사무소 희망나눔위원회 및 새마을협의회와 공동으로 수성구 지산동 불우독거 노인 세대를 방문해 도배를 비롯해 싱크대, 장판, 전등, 환풍기 교체, 노후 창호 교체, 출입문 보수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펼쳤다.



**현대건설, '거꾸로 놀이터' 기증**  
 현대건설이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거꾸로 놀이터를 기증했다. 거꾸로 놀이터는 미술·건축·환경 조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아동 연구가·미대 교수·작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단순한 놀이터에서 탈피해 최신 문화 컨셉트와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터로, 현대건설·서울문화재단·현대미술AG에 의해 공동 개발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거꾸로 놀이터는 아이들에게는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어른들에게는 여유로운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입주한 돈암 힐스테이트에 거꾸로 놀이터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전국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거꾸로 놀이터를 기증했다. 거꾸로 놀이터는 미술·건축·환경 조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아동 연구가·미대 교수·작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단순한 놀이터에서 탈피해 최신 문화 컨셉트와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터로, 현대건설·서울문화재단·현대미술AG에 의해 공동 개발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거꾸로 놀이터는 아이들에게는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어른들에게는 여유로운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입주한 돈암 힐스테이트에 거꾸로 놀이터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전국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